

기간별로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분기 중 0.6%(전년 동기 대비), 2분기 0.5%, 3분기 0.7%, 4분기 1.1% 상승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상승세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소비자물가 동향을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 가격,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하락했고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의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단위: %)

	가중치	2012	2013	2014	2015				
					연간	1/4	2/4	3/4	4/4
소비자물가	<1,000.0>	2.2	1.3	1.3	0.7	0.6	0.5	0.7	1.1
농축수산물	<77.6>	3.1	-0.6	-2.7	2.0	0.3	2.1	2.9	2.6
(농산물)	<44.1>	8.8	-1.0	-10.0	1.2	-2.8	2.1	3.0	3.0
(축산물)	<22.1>	-7.4	-0.9	9.5	3.7	4.6	2.7	4.2	3.1
(수산물)	<11.3>	2.6	1.3	2.0	1.0	3.1	1.0	0.0	-0.1
공업제품	<326.6>	2.8	0.9	1.3	-0.2	-0.4	-0.3	-0.2	0.0
(석유류)	<56.7>	3.7	-3.3	-4.3	-19.2	-22.0	-19.1	-18.1	-17.3
전기·수도·가스	<49.0>	5.0	4.5	3.9	-7.4	-3.7	-8.0	-10.8	-7.1
집세	<92.8>	4.2	2.7	2.3	2.5	2.3	2.4	2.7	2.8
공공서비스	<142.6>	0.5	0.7	0.8	1.2	0.5	0.5	1.8	2.0
개인서비스	<311.4>	1.1	1.6	1.7	1.9	1.8	1.9	1.8	2.2

축산물, 수산물 가격은 상승폭은 줄어들었으나 농산물 가격이 상승 전환하면서 농·축·수산물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0% 하락했다.

농산물은 2014년 낮은 가격에 따른 기저효과, 가뭄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전년 대비 1.2% 상승했다. 축산물은 사육두 수 감소 등으로 쇠고기 가격이 강세를 지속하면서 전년 대비 3.7% 상승했고 수산물은 1.0% 상승했다.

공업제품의 경우 기타 공업제품, 섬유제품 가격 등이 상승했으나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공업제품 전체로는 전년 대비 0.2% 하락했다.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휘발유 가격이 17.3%, 경유 가격이 20.5% 하락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19.2% 하락했다. 가공식품은 국제곡물가격 안정 등으로 2014년보다 낮은 1.3% 상승했다.

기타 공업제품은 담배가격 인상으로 13.0% 상승했다. 섬유제품의 경우 운동복, 점퍼 등의 가격이 상승해 전반적으로 4.0% 상승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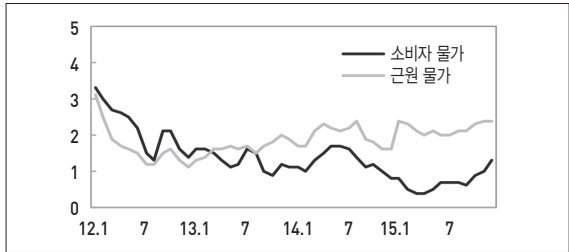
전기·수도·가스 요금은 도시가스요금 세 차례 인하와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으로 전년 대비 7.4% 하락했으나 공공서비스는 하수도로, 택시 등 지방공공요금 상승으로 0.8% 상승했다. 집세는 저금리 등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으로 2.5% 상승했다.

개인서비스의 경우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는 상승폭 둔화에도 불구하고 외식서비스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1.9% 상승했다.

외식비는 소고기 가격 상승, 소줏값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2.3% 상승했고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는 납입금 등이 하락했으나 학원비 등이 상승해 전년 대비 1.7%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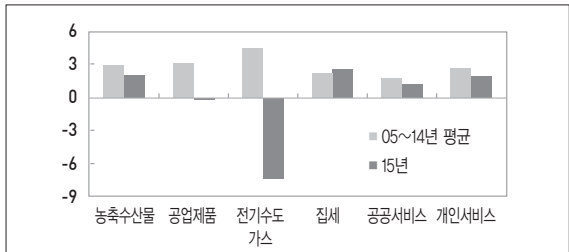
최근 물가 동향

(전년동월비, 단위: %)



부문별 물가상승률

(전년동월비, 단위: %p)



통화·금융

■ 통화

2015년 중 통화정책은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등 완화적인 기조를 보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세월호 사고 이후 지속된 경제 주체의 소비심리 위축 속에서 메르스 사태까지 발생해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수출 부진 등이 겹쳐 경기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2.0%였던 기준금리를 3월, 6월 각각 0.25%p씩 두 차례에 걸쳐 인하했다.

또한 3월 중에는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내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3조원에서 7조원으로 4조원 증액하고 지원대상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2조원 증액하는 등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총 5조원 증액했다.

그밖에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효과 제고 등을 위해 무역금융·설비투자·지방중소기업·신용대출 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를 각각 0.25%p씩 인하했다.

한편 6월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특별지원 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연장했으며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6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천억원을 추가로 출자했다.

광의의 통화(M2)의 경우 2015년에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해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국외부문에서 통화공급이 지속되고 저금리 기조 등으로 가계 등 민간신용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2013년도 4분기 이후 증가 요인의 영향이 연중 지속됐다.

협의의 통화(M1)는 전년에 증가세가 둔화됐던 수시입출식 예금 등 단기수신의 증가세가 상승하면서 18.6% 증가했다.

그밖에 2015년 중 본원통화는 16.8% 증가하면서 2014년 13.1%의 증가율보다 상승했으며 금융기관 유동성(L) 역시 전년 대비 9.7% 증가하면서 2014년 7.0%보다 상승했다.

■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 (평균, 원계열, 전년동기비, 단위: %)

	2014	2015				
		연중	1/4	2/4	3/4	4/4
L1	7.0	9.7	8.8	10.3	10.5	9.4
M2	6.6	8.6	8.1	9.1	9.3	8.0
M1	10.9	18.6	14.1	18.4	21.2	20.5
본원통화	13.1	16.8	15.4	16.4	17.9	17.5

주: 한국은행 ecos

■ 금 리

장기금리는 세계적인 통화 정책 완화 움직임,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중국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 강화 등으로 빠르게 하락했으나 연말에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및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반영하며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초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3월에 실시된 0.25% 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단행, 호주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등 세계적인 통화정책 완화기조 등의 영향으로 큰 폭 하락했다.

이후 6월 기준금리 추가 인하, 메르스 사태와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우려, 중국 등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돼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연말에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금리가 소폭 상승했다.

단기금리는 3월, 6월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대부분의 단기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폭 만큼 하락한 3월 인하 직후와는 달리 6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는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며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제한됐다.

2014년 기간 중 평균 2.49%였던 CD금리는 2015년에는 1.77%로 하락했으며 은행 수신금리(저축성 수신, 신규취급액 기준)는 2014년 2.43%에서 2015년 1.74%로 하락했다. 콜(1일) 금리는 역시 2014년 2.32%에서 2015년 1.65%로 하락했다.

장기시장금리로 볼 수 있는 채권금리의 경우에도 2015년에는 2014년보다 하락했다. 대표적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의 경우 2014년 중 2.59%였으나 2015년에는 1.79%로 하락했다.

상반기 중에는 세계적인 통화정책 완화 움직임 확대 속에서 3월, 6월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하락

했다.

하반에는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추가 금락 등으로 중국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국내 경기 둔화 우려 증가 등에 따른 위험회피 성향 등의 영향으로 9월 30일에는 사상최저치인 1.57%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은행 여수신금리도 연중 대체적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했다. 여신금리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 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 확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하락했고 수신금리도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하락했다.

■ 주요 장·단기 시장금리 추이 (기간평균, 단위: %)

	2014	2015				
		연중	1/4	2/4	3/4	4/4
국고채(3년)	2.59	1.79	1.98	1.80	1.72	1.70
회사채(3년, AA-)	2.98	2.08	2.26	2.04	1.98	2.07
CD(91일)	2.49	1.77	2.07	1.77	1.63	1.61
CP(91일)	2.60	1.87	2.17	1.83	1.70	1.78
콜(1일, 무담보, 은행간직거래)	2.32	1.65	1.94	1.68	1.48	1.48
은행수신금리 ¹⁾	2.43	1.74	2.02	1.73	1.55	1.65
은행여신금리 ²⁾	4.26	3.53	3.79	3.47	3.43	3.44
장단기금리차 ³⁾	0.27	0.14	0.04	0.12	0.24	0.22

주: 한국은행 ecos

1) 기간 중 저축성수신 신규취급분 기준 2) 기간 중 신규취급분 대출평균

3) 국고채 수익률(3년) - 콜금리(1일)

■ 증권시장

주가는 연초에는 ECB를 비롯한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국내기업의 실적 호조,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이후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조기 인상 우려,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중국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 등의 대외 불안 요인과 메르스 사태 등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 등 대내 불안요인이 맞물려 하락세를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다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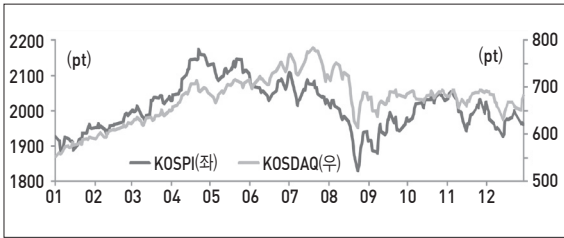
주가는 ECB, 호주를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으로 연초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며 4월 23일에는 연중 최고치(2,173)를 기록했다.

이후 추가 기준금리 인하(6월)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 우려와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며 하락세가 지속됐다.

8월 이후 중국 증시 폭락, 위안화 절하 등 중국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8월 24일에는 연중 최저치(1,830)까지 하락했다.

이후 중국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된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시기, 기업 실적 부진 우려 등 대내외 리스크에 따라 등락이 반복되는 현상이 지속되며 전년보다 2.4% 상승한 1,961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코스닥 지수 추이



2015년에는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8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9천억원 정도 증가했다.

상반기 중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장세 속에서 추가 상승 기대, 가격 제한폭 확대 시행 등의 영향으로 일평균 거래대금이 8조~10조원대로 증가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중국 증시 불안에 따른 추가 약세, 미국 금리 인상 우려 부각 등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되며 거래대금이 7조~8조원대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 일평균 거래량은 전년보다 증가한 5조4천억원 수준을 기록했고 코스닥 일평균 거래량 역시 2조원에서 3조5천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주식시장 연도별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단위: 조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코스피	5.6	6.9	4.8	4.0	4.0	5.4
코스닥	1.9	2.3	2.2	1.8	2.0	3.5
전체	7.5	9.1	7.0	5.8	6.0	8.9

2015년 중 외국인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부, 국내 기업 실적 전망,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자금 유출입을 반복했으나 연중 3조원의 순유출을 보이며 2014년 11조5천억원에 비해 감소했다.

외국인은 주식시장에서 상반기에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국내 기업의 양호한 실적,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8조2천억원 규모의 순유입을 보였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미국 정책금리의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며 달러화 강세가 나타난 가운데 중국 증시 불안, 국내기업 실적 부진 전망 등 대내외 리스크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등의 영향으로 11조7천억원 규모의 순매도를 보이며 연간으로 3조5천억원을 순매도했다.

매수 주체별로는 미국이 9조9천억원을 순매수했으나 영국은 5조2천억원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5년 중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상반기 중에는 지속적인 순투자를 보였으나 하반기 중 순유출을 보이며 연중으로 5천억원을 순투자했다. 매수 주체별로는 중국이 2조7천억원을 순투자했으나 미국, 태국이 각각 6천억원, 1조1천억원을 순유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 외환시장

2015년 중 원·달러 환율은 미국 경제지표 부진 여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외국인의 증권 투자 증감 등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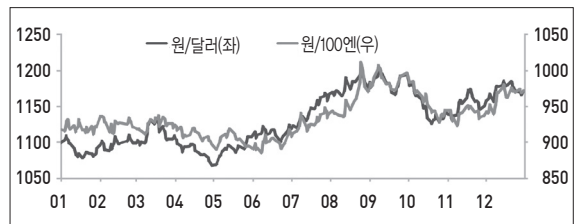
을 받아 등락이 지속됐다.

연초 환율은 미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연됨에 따라 글로벌 달러 약세가 나타난 가운데 외국인 국내 증권 투자가 지속되는 등의 영향으로 4월 29일 1,068.6원(연중 최저점)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6월 이후에는 그리스 및 중국 관련 우려 등에 따른 위험회피 성향이 증가하며 9월 7일 1,203.7원(연중 최고점)까지 상승했다.

이후 미국 금리인상 지연 기대, 중국 경기둔화 우려 및 위안화 추가 절하 등이 혼재되며 등락을 반복하다 1,172.5원으로 전년 말 대비 6.2%가 절하되며 장이 마감됐다.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G20 국가의 통화는 모두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다.

원/달러, 원/엔 환율 동향



2015년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에 비해서는 증가(일중 변동폭: 2014년 4.9원→2015년 6.6원, 전일 대비 변동폭: 2014년 3.5원→2015년 5.3원)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중국 증시 급락, 위안화 절하 등 금융시장 불안이 일일 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작용했다.

환율 변동성의 확대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로서 G20 국가 통화의 평균 수준(0.53%)을 소폭 하회했다.

외환보유액은 2015년 말 3천679억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3억7천만 달러 증가하며 증가폭이 감소했다.

이는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흑자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조기 기준금리 인상 우려, 중국 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른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이 유출세로 전환된 것에 기인했다.

우리나라의 총외채 규모는 2015년 말 3천966억 달러로 전년 말 대비 278억 달러 감소했다.

총외채의 감소는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금액이 감소하고 은행이 외화차입금을 축소했으며 수출입 감소로 무역신용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했다.

단기외채는 수출입 감소에 따른 민간기업 무역신용 감소, 은행 차입금 상환 등으로 각각 42억 달러, 41억 달러가 감소한 데 기인해 감소했으며 장기외채 역시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인 국고·통안채 투자 평가액 감소(88억 달러 감소), 기업과 비은행금융기관의 회사채 상환(73억 달러 감소) 등으로 감소했다.

단기 외채 감소와 대외채권 증가 등으로 외채 건전성과 지급능력 지표는 전년 말 대비 개선됐다.

총 외채 대비 단기 외채의 비중은 27.4%로 전년 말 대비 동

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단기적인 대외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은 29.6%로 전년 말 대비 2.5%p 감소하며 2004년 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3천232억 달러로 전년 말 대비 640억 달러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외채 건전성 및 지급능력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 자금흐름

2015년 중 금융기관 수신은 2014년과 비교시 증가폭이 감소했다. 은행수신은 100조원 증가해 2014년 115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수신 형태별로는 정부의 재정집행자금 유입 등으로 수시입출식 예금 증가규모가 확대됐으나 정기예금의 경우 두차례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수신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됐고, 예대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은행의 자금조달 유인이 약화되는 등에 기인해 8조2천억원 감소로 전환됐다.

한편 시장성 수신은 시중 금리 인하에 따른 은행채 발행여건 악화 등으로 은행채의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CD 발행은 전년과 달리 발행이 증가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2015년 중 44조4천억원 증가하면서 2014년의 47조원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 MMF는 2015년 중 11조원이 증가해 2014년 중 16조원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축소됐다.

채권형 펀드 및 신종 펀드는 일부 정부자금 자금의 유입 등으로 2014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각각 14조4천억원, 16조원이 증가했다. 주식형 펀드는 하반기 주가의 큰 폭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의 유입 등으로 6조2천억원 감소에서 2조1천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또한 증권사 고객예탁금은 4조9천억원 증가해 2014년 2조2천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고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금전신탁은 23조5천억원 증가해 2014년에 비해 증가폭이 감소했다.

금융기관 수신 추이

(기간 중 증감, 단위: 조원)

	2014	2015				
		연중	1/4	2/4	3/4	4/4
은행수신	115.4	100.3	-2.4	35.4	29.3	38.0
수시입출식	50.2	92.0	13.5	34.6	22.5	21.4
정기예금	13.2	-8.2	-10.3	-4.3	-0.1	6.5
CD	-5.5	9.6	1.2	1.7	4.1	2.6
은행채	55.4	5.6	-5.4	1.6	4.2	5.2
자산운용사	47.0	44.4	28.1	18.1	0.6	-2.4
MMF	16.0	11.0	19.1	4.2	-4.4	-7.9
주식형	-6.2	2.1	-0.5	-2.4	4.3	0.7
채권형	14.8	14.4	6.1	5.9	1.8	0.6
혼합형	5.1	0.9	-2.4	2.8	2.2	-1.7
신종형	17.4	16.0	5.6	7.6	-3.1	5.9
금전신탁	40.7	23.5	10.9	4.3	2.4	6.0
증권사 고객예탁금	2.2	4.9	2.3	3.3	0.3	-1.1

주: 한국은행

■ 기업자금

2015년 중 기업자금 조달은 은행대출은 2014년에 비해 감소했고 직접금융 역시 2014년에 비해 축소됐으나 어음부도율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기업대출 연체율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2015년 중 은행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대출의 큰 폭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대출이 감소로 전환돼 2014년 52조원에 서 2015년 48조3천억원으로 감소됐다.

대기업 대출은 회사채 발행 확대, 일부 은행의 합병에 따른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 일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차입금 상환 등으로 2014년도의 18조5천억원 증가에서 2015년 4조5천억원 감소로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기술신용대출의 확대,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부동산 업종 등의 자금 수요 확대 등에 따른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 등으로 2014년의 33조5천억원에서 2015년 52조8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직접금융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은 1분기에는 2014년 하반기 부터 이어진 신용 경계감 지속 등으로 인해 부진했으나 2분기 들어 저금리 등 양호한 발행여건과 투자 수요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됐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 대우조선해양 부실 여파로 취약업종에 대한 신용 경계감이 확산되며 업종별·신용등급별 차별화가 심화되는 등 발행여건이 위축되며 순상환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회사채 순발행 규모는 2014년의 1조8천억원 순발행에서 2015년 3천억원 순상환으로 전환됐다.

회사채 유통시장에서 우량등급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금리 하락 추세 등을 반영하며 축소됐으나, 비우량등급 회사채 스프레드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여파로 취약업종에 대한 경계감이 강화되며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됐다.

CP의 경우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상환,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 등의 영향으로 2014년 2조1천억원 순상환에서 2015년 3조7천억원 순상환으로 순상환 규모가 확대됐다.

주식발행 역시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2014년 9조6천억원에서 2014년 7조원으로 감소했다.

기업자금조달 현황

(기간 중 증감, 단위: 조원, %)

	2014	2015				
		연중	1/4	2/4	3/4	4/4
은행대출	52.00	48.30	15.80	12.20	16.40	3.90
대기업	18.50	-4.50	0.40	-4.30	0.70	-1.30
중소기업	33.50	52.80	15.40	16.50	15.80	5.10
직접금융	9.20	3.00	3.00	5.40	-2.00	-3.40
회사채순발행	1.80	-0.30	-0.50	3.70	-0.60	-2.90
CP 순발행	-2.10	-3.70	2.10	0.80	-3.70	-2.90
주식발행	9.60	7.00	1.40	0.90	2.30	2.40
어음부도율	0.16	0.16	0.23	0.20	0.12	0.10
기업대출 연체율	1.11	0.90	0.89	0.92	0.91	0.90

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어음부도율은 2014년과 동일한 0.16%를 기록했으며 기업 대출 연체율은 연중 신규연체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하락한 0.90% 수준을 나타냈다.

■ 가계신용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5년 말 현재 1천207조원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12조7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연간 증가폭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증가속도는 2014년의 6.5%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해 2015년에는 11.2%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8월 LTV·DTI 대출규제 합리화 등에 따른 주택 시장 정상화 기초 속에서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2006년 이후 최대치를 보인 주택거래량 증가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반기에는 분양물량 확대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 증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016년 2월)을 앞둔 대출 선수요 반영 등이 복합적으로 집중돼 하반기 가계부채 증가폭(7조5천억원)이 상반기의 46조2천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총 규모면에서는 은행권, 비은행권 모두 증가했으나 세부 구성 중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규제 합리화로 비은행권 대출의 상대적 비중이 약화되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2011년 6월 29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2015년 7월 22일) 등 가계부채 대책 추진 등으로 2010년 말 0.5%에 그쳤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2014년 말 23.6%, 2015년 말에는 35.7%로 증가했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2010년 말 6.4%에서 2014년 말 26.5%, 2015년 말에는 38.9%로 확대되는 등 가계대출 구조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4년 말 0.49% 수준에서 2015년 말 0.33%까지 하락했고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도 2014년 말 0.41%에서 2015년 말 0.27%까지 하락하는 등 안정되는 모습이다.

가계신용	(기말, 단위: 조원)					
	2013	2014	2015			
			1/4	2/4	3/4	4/4
가계신용	1,021.4	1,085.3	1,098.3	1,131.5	1,165.9	1,207.0
가계대출	962.9	1,025.1	1,039.3	1,072.0	1,102.4	1,141.8
판매신용	58.5	60.2	59.0	59.5	63.4	65.1

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수지

■ 개요

2015년 경상수지는 1천59억6천만 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됐으나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전년 대비 215억9천만 달러 증가했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7.7%(잠정치)로 1998년(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 등 내수가 회복세를 보였으나 유가 급락으로 수입단가(전년 대비 -21.2%)가 수출단가(전년 대비 -11.7%)보다 크게 하락해 상품수입금액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됐다.

상품수지는 1천203억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4억8천만 달러 증가했다. 상품수출은 5천489억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5% 감소한 반면 상품수입은 4천285억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2% 감소했다.

통관기준 수출입차(무역수지)와 국제수지표 상의 상품수지는 개념상 일견 유사해 보이나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2015년의 경우에도 통관기준 수출입차는 902억6천만 달러인 반면 국제수지표 상의 상품수지는 1천203억7천만 달러로 301억천만 달러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통관 수출입 통계가 수출입 신고서 수리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반면 국제수지표 상의 상품수출입 통계는 상품의 소유권 변동일을 기준으로 집계하기 때문이다.

특히 선박의 경우 통관(인도) 시기와 소유권 이전(금액영수서 시점) 시기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선박수출 여부가 양자 간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2010년 1월 국제수지 기준이 IMF BPM6로 개편(국내통계는 2014년 3월에 반영)돼 상품수출입 산출 시 소유권변동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적용하면서,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통관수출입액을 제외하고 소유권 변동이 있는 무통관 수출입액을 포함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외 투자와 해외 현지생산이 확대된 2007년 이후 양자 간 차이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또한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포함 여부도 영향을 준다. 통관수입은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OF 기준)하는 반면, 상품수입은 운임과 보험료를 차감(FOB 기준)한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특이요인이 없는 한 상품수지는 구조적으로 통관기준 수출입차보다 흑자규모가 크게 나타난다.

■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

2015년 수출은 5천267억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8.0% 감소했다. 중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수출 물량은 증가세를 유지(전년 대비 2.5% 증가)했으나 유가급락으로 석유·석유화학제품 등 유가영향품목을 중심으로 수출단가가 하락(전년 대비 -11.7%)하면서 수출이 감소 전환됐다.

분기별 수출증가율은 1분기 -3.0%, 2분기 -7.3%, 3분기 -9.5%, 4분기 -12.0%로, 수출 감소세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10.2%), 선박(0.6%), 반도체(0.4%)는 증가했으나, 석유제품(-37.0%), 석유화학(-21.6%), 철강(-15.0%), 평판DP(-8.2%), 자동차(-6.4%) 등은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는 공급과잉에 따른 메모리 단가 급락으로 4분기에 감소로 전환(전년동기대비 -11.6%)했으나 수출규모 600